

# 세계화시대의 도시범죄관련 미국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

Crime-related U.S. Urban Design and Order Maintenance Poli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Urban Design Practices

권태정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Kwon Taejung Associate Research Fellow, Green Territory &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edankwon@krihs.re.kr)

## 목 차

### I. 서론

### II. 세계화와 도시범죄

### III. 세계화 시대, 미국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

1. 세계화 시대, 도심의 중요성
2. 세계화 시대, 미국 도시설계의 특징
3. 세계화 시대, 미국 질서유지정책의 특징

### IV. 향후 도시설계적 범죄대응 방안을 위한 시사점

### V. 결론

## I. 서론

경찰청의 지난 10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시지역에서의 범주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sup>1)</sup> 도시 내에서의 범죄 혹은 범주에 대한 공포는 해당 지역 도시주민들의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일 경우 그 연관관계는 더욱 뚜렷해진다.<sup>2)</sup>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과 이를 통한 도시생활환경 만족도의 증진을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학계에서는 2000년을 전후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경찰청은 CPTED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T/F를 구성, 경기도 부천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차원의 도심환경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2007년 9월 확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신도시) 도시설계 지침에 CPTED요소가 적극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범죄대응관련 프로그램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폐쇄회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와 단지입구의 차단막과 같은 각종 보안시설을 이용한 ‘접근통제(Access Control)’ 또는 ‘범죄대상강화(Target Hardening)’에 대한 의존이 크고 일괄적 불량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관리(Image and Maintenance)’에 큰 비중을 두는 등 최근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환경설계범죄예방수단과 ‘질서유지정책(The Order Maintenance

Policy)’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최근 급속한 증가<sup>3)</sup>는 미국 CPTED와 질서유지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으로 간주되는 도시 공공공간의 ‘준사유화(Semi-privatization)’의 문제점이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미국 CPTED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와 그동안 국내 도시범죄관련 도심환경개선 프로그램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 ‘질서유지정책’에 관한 미국 도시사회학계 및 도시계획학계 담론을 소개·분석하여 향후 범죄관련 도시설계적 대응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질서유지정책 및 준사유화 문제점이 대두된 시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유경제체제하에서의 ‘세계화(Globalization)’였던 점을 비추어, 이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환경설계 혹은 도시설계만의 대응이 아닌 범죄관련 포괄적 대응방안 속에서 도시설계의 미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경제적 세계화가 대두된 시대적 배경과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도시범죄문제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세계화 속에서 도심의 중요성이 강조된 배경을 설명한 후에 세계화가 미국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범죄예방관련 미국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질서유지정책의 나아갈 바와 도시설계의 역할을 논한 후,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도시설계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1) 각 연도 경찰백서, 경찰청(<http://www.police.go.kr>). [2008. 11. 13]

2) 김태경·이승일. 2007. “공간특성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국토연구 제53권. 경기 : 국토연구원. p143.

3)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설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수는 2001년 1,882업체 8만 1,618명에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2,834업체 13만 5,400명으로 각각 51%, 66% 성장하였음.

## II. 세계화와 도시범죄

정보관련 현대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물리적 도시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그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sup>4)</sup>. 반면, 교통 혼잡과 사회적 불평등, 범죄와 같이 정보화 시대가 진행될수록 해소되리라 여겨졌던 도시문제는 그대로 남아, 홀(Peter Hall)이 예상했던 ‘세계도시(World Cities)’와<sup>5)</sup> 같은 ‘이상도시(Utopia)’의 실현은 아직 묘연하다. 과거 중세시대의 이상도시론은 외부사회의 혼란으로부터의 공간적 폐쇄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인 사회변화를 간과하여 실현성 측면에서 비난받았다<sup>6)</sup>. 이와는 달리 사회변화를 촉진시켜주는 정보 기술의 발전은 과거 이상도시론의 한계를 극복, 현대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도시상황은 기대와는 다소 상반되어 아직도 많은 도시민들은 정보화의 열매를 향유하기보단 일상의 험난한 도시 환경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된 이유로 많은 미국 내 도시사회학자들은 경제적 세계화(Globalization)를 거론하고 있다. 즉, 현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변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단 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기존의 도심 문제들은 심

화되었고 오히려 과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만의 도시문제를 세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르크스학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체제는 생존을 위하여 변화해왔다. 하비(D. Harvey)와 카스텔(M. Castells)과 같은 신 마르크스학자들(Neo-marxists)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체제 자체의 건전성보다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지속적으로 고안해 냄으로써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 192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자본주의체제는 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로 축적된 과잉이윤을 소비할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과잉 축적된 이윤의 재투자였던 것이다<sup>8)</sup>. 반면, 또 다른 경제위기였던 1970년대의 경우에는 그 해결책으로서 또 다른 생존전략을 고안하였는데 그것은 과잉 이윤의 공간적 확산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공간적 생존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체 시장의 확대(Regional Alliance)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생산거점 혹은 수단의 확산(Globalization)이다<sup>9)</sup>. 따라서 이와 같은 공간적 생존전략의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융합, 1970년대 경제위기 탈출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정보관련 기술의 발달이 없었다면 1970년대의 경

4) Mitchell, W. 1995. *City of Bits: Space, Place, and the Infobahn*. Cambridge : The MIT Press.

5) Hall, P. 1966. *The World Cities*. London : Weidenfeld and Nicolson.

6) Fishman, R. 1987. *Bourgeois Utopia: The Rise and Fall of Suburbia*. New York : Basic Books.

7)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Inc.;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 Princeton University Press.

8) Harvey, D. 2001. *Spaces of Capital: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New York : Routledge.

9) 상계서.

제위기 극복은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신마크스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지금의 경제 세계화는 19세기 강대국들의 식민지 정책과 동일하며, 단지 차이점은 현대 정보관련 기술의 발달에서 기인한다고 믿는 것이다.

카스텔(M. Castells)에 의하면 정보관련 기술의 발달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세계화에 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정보관련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 활동과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경제활동의 분산효과가 야기됨과 동시에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중요성 또한 재발견되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경제활동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야기되는 시너지효과의 중요성이 현대 정보화 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고도의 네트워크시스템이 현대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단정하였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시스템 속에서 정보화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경제활동 및 수단들의 전 세계적 이동에 극도의 유연성을 부여,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들 간의 경쟁체제를 조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각 도시들은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적어도 쇠락을 막기 위해선 대표적 생산수단인 자본을 경쟁적으로 유치해야 했다. 따라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의 감면은 물론 과거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 주로 쓰이던 공공기금을 이용, 각 도시들은 기업 혹은 자본 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쓸 수밖에 없

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sup>10)</sup>.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소득 계층의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며 이러한 양극화는 최근 도시 내에서의 범죄증가와 치안관련 사회적 문제인식의 표면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신 마르크스 학자들은 여기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 주요 도심에서의 급속한 범죄의 증가<sup>11)</sup>는 세계화에 따른 도시민 계층의 양극화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범죄학자들의 견해도 존재한다. 하코트(B. Harcourt)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격리이론(the Incarceration Theory)’<sup>12)</sup>에 근거하여 핵심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경찰력 집행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하여 대도시 도심에서의 범죄 및 같은 기간 동안 수감인원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범죄 증가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같은 기간 동안의 범죄 및 수감인원의 증가 원인을 미국 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한 ‘질서유지정책(the Order Maintenance Policy)’<sup>14)</sup>에서 찾고 있다.

즉,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경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질서유지정책은 범죄 빈도수의 절대량 증가에 큰 기여를 했으며 대부분 훈방 조치되던 과거와는 달리 경범죄 행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결과로 이어져 수감자수의 대폭 증가에도 기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범죄 증가에 대한

10)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L.A. : Univ. of California Press.

11)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교도소의 수감인원은 1970년의 20만 명에서 2000년 13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12) ‘격리이론(the incarceration theory)’이란 청년층의 약 6%에 해당하는 핵심 범죄자가 전체 범죄 빈도의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에 근거, 범죄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선 이들 핵심 범죄유발자들을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이론임.

13) Harcourt, B. 2002. "Policing Disorder: Can We Reduce Serious Crime by Punishing Petty Offenses". *Boston Review* vol.27, no.2, Somerville : Boston Review. pp16-22.

14) 미국의 질서유지정책(the order maintenance policy)은 1982년 윌슨(J. Q. Wilson)과 켈링(G. L. Kelling)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법칙(the broken window theory)’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지역 내 불량 생활환경과 쓰레기 투기와 같은 비시민적 행동(incivility)들이 지역 내 흉악범죄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범죄예방차원에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경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흉악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일련의 정책을 일컫음.

서로 다른 견해도 불구하고 경제적 세계화의 직·간접적 영향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예로 바이스(R. Weiss)는 질서유지정책과 근래 미국 내 수감자의 급속한 증가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들 증가된 수감자의 대부분은 세계화를 통해 최근 뚜렷이 늘어난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인종과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만약, 최근 도시범죄의 증가와 도시범죄관련 문제의식의 대두가 경제적 세계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면 세계화된 기업을 포함한 소위 자본세력들이 그들의 최근 미국 주요 도심에 대한 투자 및 자산에 많은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증폭된 도시범죄문제를 조장 혹은 방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해답은 세계화 시대 속의 지정학적 주요 거점 즉, 기존 도심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이러한 거점을 그들만의 이상적 도심(Utopian Downtown)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III. 세계화 시대, 미국 도시설계와 질서유지 정책

#### 1. 세계화 시대, 도심의 중요성

정보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세계화는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등 도시의 공간적 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집중과 중심이라는 과거 도시의 대표적 성격은 최근 들어 오히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대면 접촉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와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요 도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기반 시설이 경제적 세계화 시대 속에서 많은 기능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세계화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의 폭은 눈에 띄게 넓어졌으나 이러한 활동 영역의 확장이 단순한 대면 접촉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카스텔(M. Castells)은 주장하였다<sup>16)</sup>. 이와 유사하게 정보관련 과학기술의 발달이 도시민들의 통근 형태 자체를 사라지게는 못한 반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통근거리는 눈에 띄게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7)</sup> 즉,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 교육, 의료, 여가의 장(場)인 실제 공간에서 인간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더 다양한 직장이 창출되고 사회적 교류가 과거보다 활성화되어 그 실질적 만남의 빈도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간을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존 도심이야말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는 최적의 선택 대상인 것이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 기존 도심이 다시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도심의 기능적 이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업체로 하여금 기업과 관련된 일련의 경제활동들을 공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기업종별 기업체들은 정보화 시대 속에서 다른 업종,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세계화는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등 도시의 공간적 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집중과 중심이라는 과거 도시의 대표적 성격은 최근 들어 오히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대면 접촉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와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요 도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기반 시설이 경제적 세계화 시대 속에서 많은 기능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15) Weiss, R. 2000.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and Globalization at the New Millennium". *Social Justice* vol.27, no.2. San Francisco : Social Justice, pp1-17.

16) Castells, M. 2002. *The Castells Reader on Cities and Social Theory*.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Inc.

17) Bram J. and A. McKay. 2005. "The Evolution of Commuting Patterns in the New York City Metro Area".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vol.11, no.10. New York City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pp1-7.

그리고 이러한 긴밀한 협력은 기존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정보관련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체 및 은행과 같은 기반 업종과의 공간적 접근성을 통하여 이뤄진다. 이러한 측면이 나스닥(NASDAQ)과 이트레이드(E-Trade) 같은 굴지의 온라인 기반 정보관련 산업체가 가장 전통적인 금융가에 입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다<sup>18)</sup>.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세계화 시대 속에서 기존 도심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하려는 도시 간의 경쟁구도 속에서 각 도시들은 세계화된 기업체 및 이들과 관련된 새로운 계층의 도시민의 구미에 맞게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였으며 이들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sup>19)</sup>. 미국 내 주요 도심의 도시사회문제 중 범죄관련 사회문제는 경제적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다. 즉, 미국 내에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계속되었던 도심 소요사태로 인한 사회적 긴장 때문에 교외로 빠져나갔던 주요 산업체와 자본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도심 범죄와 같은 사회적 긴장요소의 해소는 필수적 선결과제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해결책으로 세계화 시대의 산업체와 자본들은 중세시대 ‘토마스 무어(Thomas More)’의 이상도시론에 입각하여 그들만의 이상도시를 기존 도심 내에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이상도시의 주요 특징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잠재적 사회 불안 요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인 것이다<sup>20)</sup>. 하지만 이러한 이상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대망상(Panic)’에 가까운 범죄관련 보안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전제 도시민으로부터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다양한 사회기관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 미국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격리이론’과 ‘질서유지정책’ 등을 바탕으로 도시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찰력 행사는 물론 이에 따라 부각된 범죄관련 도시사회문제에 대한 우려에 그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그들만의 이상도시 건설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질서유지정책’의 경우는 세계화 시대 속의 이상도시 건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줌과 동시에 그들 이상도시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쓰여, 다음에 소개될 세계화 속의 미국 도심 도시설계 특성들과 함께 미국 주요 도심의 ‘준사유화(Semi-privatization)’ 과정을 촉진한 촉매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 2. 세계화 시대, 미국 도시설계의 특징

전 세계에 걸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미국 도시설계의 가장 큰 특징 또한 사회불안요소로부터의 격리 혹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의 미국도시설계의 많은 결과물들은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통한 공공공간의 준사유화로 대표될 수 있다. 카스텔(M. Castells)에 의하면, 공공공간의 준사유화는

18)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 Graham, S. and S. Marvin, 2001. *Splintering Urbanism: Networked Infrastructures, Technological Mobilities and the Urban Condition*. New York : Routledge.

20) Massey, D. 1996. "The Age of Extreme: Concentrated Affluence and Pover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ography* vol.33, no.4, Baltimore : Project MUSE, pp395-412.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뤄지는데 그중 하나는 환경디자인을 통한 공간적 격리이며 다른 한 가지는 보안 혹은 출입 통제(Security Control)를 통한 비공격적 격리 기법이다<sup>21)</sup>. 이 중 첫 번째 방법인 공간적 격리 측면에서 근래 미국 도심 도시설계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공간적 격리 방법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미국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소개하고자 한다.

CPTED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건을 규명하여 이를 개선 또는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일컫는다.<sup>22)</sup> CPTED란 용어는 1971년 제프리(C. R. Jeffery)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으로부터<sup>23)</sup>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이론적 배경은 1960년대의 우드(E. Wood), 제이콥스(J. Jacobs), 엔젤(S. Angel) 등의 연구들을<sup>24)</sup>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는 1970년대 제프리의 연구는 물론 뉴만(O. Newman)의 연구<sup>25)</sup>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프리의 연구는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경을 규명하고 이들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개선이 실질적 범죄예방에 효과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환경은 뉴만이 언급한 외부환경(External Environment)은 물론 심리학과 두뇌 생리학 기반의 내부환경(Internal Environment)을 포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개개인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동시에 강조하였다.<sup>26)</sup> 하지만, 제프리의 포괄적 개념의 CPTED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기까지는 많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등, 추상적으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하여 범죄학계는 물론 당시의 미국 정부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반면, 건축학을 전공한 뉴만의 경우 그의 저서를 통해 범죄예방에 필수적인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 가져야 할 4가지 필수 요소로서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이미지(Image)', '전이환경(Milieu)'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필수요소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구현할 수 있는 실현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뉴만의 이러한 공간설계적 실현방안은 미국정부 및 정부기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여 그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의 실험사업 및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현재의 CPTED 이론 및 설계원칙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뉴만의 설계이론을 적용한 후속 사업과 연구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넘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단지과 심지어는 상업지역 등으

21) Castells, M. 2002. *The Castells Reader on Cities and Social The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Inc.  
 22) Hough, J. M., R. V. G. Clarke and P. Mayhew, 1980. *Designing Out Crime*. London : HMSO; Taylor, R. B. and A. V. Harrell, 1996. "Physical Environment and Crim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3) Jeffery, C. R.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y Hills : Sage.  
 24) Wood, E. 1961, "Housing Design, a Social Theory". New York : Citizen's Housing and Planning Counsel of New York; Jacobs, J. 1961. *The Life and Death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 Random House; Angel, S. 1968. *Discouraging Crime Through City Planning*.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25)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People and Design in the Violent City*. New York : McMillan.  
 26) Jeffery, C. R. 1971. Idem; Jeffery, C. R. 1977.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2nd ed, Beverly Hills : Sage; Jeffery, C. R. 1990. *Criminolog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로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우선 머레이(C. Murray)는 뉴만의 설계기법을 통해 조성된 방어공간이 범죄발생률을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며,<sup>27)</sup> 그린버그(S. Greenberg)와 로우(M. W. Rohe)는 단지설계와 지역주민의 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뉴만의 ‘방어공간적’ 측면과 ‘범죄기회이론(the Crime Opportunity Theory)’<sup>28)</sup>의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는 뉴만의 방어공간적 CPTED보다는 1970년대 후반 대두된 ‘기회이론(the Crime Opportunity Theory)’에 바탕을 둔 ‘상황별 범죄예방대책(the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Model : SCP)’이 범죄예방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sup>29)</sup> 또한 뉴만의 방어공간을 기반으로 한 초기의 CPTED는 빈곤과 실직, 인종차별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을 간과한 채 범죄발생 요인을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만 단순화시키는 등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적이라는 비난 속에 자구적 개선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CPTED는 범죄자 또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합리적 이성판단의 주체로 간주, 최대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성과방향으로 범죄환경을 조성한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황별 범죄예방대책(SCP)’을 포함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의 개념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서 사회경

제적 환경, 나아가 범죄관련 형법제도의 개념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CPTED는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범죄 유형별로 범죄자의 범행관련 공간이용행태를 분석하여 범죄자의 검거 및 예방의 기반으로 삼는 ‘환경범죄학(the Environmental Criminology)’과 미국의 ‘질서유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깨진 유리창 이론(the Broken Window Theory)’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범죄예방대책으로 발전해갔다. 그 결과 도시설계접근방식의 CPTED 주요 원칙들 또한 과거 뉴만의 ‘방어적 공간(Defensible Space)’ 개념의 CPTED보다 확대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기존 원칙인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물론 각종 방법시설의 설치를 위주로 하는 ‘범죄대상 강화(Target Hardening)’, ‘생활환경 개선 및 관리(Image and Maintenance)’, 지역 공동체 중심의 각종 범죄예방과 관련된 활동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의 지원(Activity Support)’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설계 원칙들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주거단지설계는 물론 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설계에 ‘선별적’으로 적용되어 앞서 카스텔이 언급한 경제적 세계화시대 속에서 도시 공공공간의 준사유화(Semi-privatization)를 위한 공간적 격리기법으로 사용되었다.

공간설계를 통한 격리의 첫 번째 대표적 결과물은 최근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게이티

27) Murray, C. 1994. "The Physical Environment", eds. J. Q. Wilson and J. Petersilia, *Crime*, San Francisco :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28) 1970년대 후반 나타난 ‘범죄기회이론’은 범법행위는 범죄자의 개인적 성향뿐 아니라 범행 당시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뉴만의 방어공간에 기반을 둔 초기의 CPTED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특정 범죄 유형별로 환경적 범죄행위 요인을 규명하고 물리적 환경설계 뿐 아니라 형량의 조정과 같은 법적 대응방안까지 고려하는 보다 광범위한 범죄예방 대책인 ‘상황별 범죄예방대책(the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 SCP)’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음.

29) Greenberg, S. and M. W. Rohe. 1984. "Neighborhood Design and Cri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50, Chicago :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48-61.

드커뮤니티(Gated-Community)’의 등장이다. 일반적으로 ‘게이트드커뮤니티’란 현대 CPTED의 주요 원칙 중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보다는 ‘범죄대상 강화(Target Hardening)’의 측면에서 주거단지 입구에 ‘차단막(Gate)’을 설치하고 단지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 주변으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주거단지를 일컫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주거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CCTV와 같은 첨단 감시시스템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방법수단과 연관된다. 미국 내 ‘게이트드커뮤니티’ 주거단지의 경우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 경계를 설정한 후 이를 주거단지의 주거 쾌적성 증진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때 설정된 물리적 경계 안에는 병원, 학교 등 지역주민뿐 아니라 다른 도시민들에게도 필수적인 공공시설들이 입지해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확장된 개념에서의 ‘게이트드커뮤니티’, 특히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상업단지의 경우는 특정 사용자층을 위한 도로의 전용 등을 통해 도로 자체를 공간적 울타리, 즉 방법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자연적 접근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sup>30)</sup> 즉, 주변도로 및 접근도로의 성격을 선별적으로 선택, 고급화된 단지 성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상업단지 설계기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둘러싸인 거대한 주차장 중심에 내부를 향하도록 주요 건물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그림 1\_ 자동차전용도로와 대단위 주변 주차장에 의해 선별적 접근 통제가 이뤄진 미국 교외 상업단지



주: 미국 뉴저지주 교외에 위치한 Rockaway Mall(상)과 Ocean County Mall(하). 출처: Google Earth, 2009.1.12.

다. 만약 대지의 조건상 거대한 주차장과 같이 공간적 완충지대를 두기 힘든 경우에는 단지주변에 물리적 울타리를 치거나 극히 제한된 출입구를 가진 요새와 같은 대형 건물로 설계하는 기법이 흔히 쓰이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건축은 ‘요새건축(Fortress Architecture)’<sup>32)</sup> 혹은 ‘엄폐호건축(Bunker Architecture)’<sup>33)</sup>이라 불리며 공공공간을 준수유

30) Graham, S. and S. Marvin, 2001. *Splintering Urbanism: Networked Infrastructures, Technological Mobilities and the Urban Condition*, N.Y. : Routledge.  
 31) 상업단지로의 접근이 고속도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도시민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함. (Goss, J. 1993. "The Magic of the Mall: an Analysis of Form, Function, and Meaning in Contemporary Retail Environ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83, no.1, Washington, DC :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pp18-47).  
 32) Gottdiner, M. 1997. *The Theming of America: Dreams, Visions and Commercial Spaces*. Boulder: Westview.

화하는 대표적 기법으로 간주되고 있다.<sup>34)</sup>

세계화시대 속에서 CPTED의 주요 범죄예방 설계원칙이 적용된 미국 도시설계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도심 혹은 빈민가 등의) ‘고급화(Gentrification)’이며, 이 ‘고급화’의 추세는 앞서 언급된 게이티드커뮤니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도심 혹은 기존 빈민가의 고급화는 게이티드커뮤니티의 주요 특징인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이는 사상누각(砂上樓閣)과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고급화’는 게이티드커뮤니티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갖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도심고급화’는 세계화 시대에 등장한 신 경제계층인 정보지식산업 종사자들, 일명 ‘닷커머(Dot-Commers)’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며,<sup>35)</sup> 다른 하나는 ‘도심고급화’는 공간적 격리 혹은 분리에 있어서 CPTED 설계원칙 중 ‘영역성(Territoriality)’과 질서유지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 ‘생활환경 개선 및 관리(Image and Maintenance)’를 주된 공간격리 설계 기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게이티드커뮤니티가 특정 계층 도시민의 접근을 물리적 방법으로 차단하는 설계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도심고급화’는 용도 및 시설계획 등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계층만을 위한 영역을 새로이 조성하여 영역에 ‘부적합’한 도시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예로 ‘닷커머’라 불리는 새로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 및 민간사업시행자의 요구대로 고급지향의 다양한 용도 시설들을 ‘도심고급화’지역에 입지시키고 특정 도

그림 2\_ 미국 뉴욕 소호거리의 ‘고급화(gentrification)’에 따른 고급점포의 입점



출처: Google Street View, 2009.2.8.

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가격과 이미지조성을 통하여 이들의 접근을 최소화 하고있는 것이다.<sup>36)</sup>

‘도심고급화’에 따른 도시설계의 또 다른 특징이자 문제점은 주거단지 혹은 쇼핑단지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게이티드커뮤니티’ 도시설계에 비하여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며 또한 그 대상지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던 주요 미국 도시의 도심부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심고급화’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있는 미국 도심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도심은 다양한 도시활동의 중심지로서 일정 계층의 도시민뿐 아니라 모든 다양한 도시민을 위한 터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주요 도시 내에서의 ‘도심고급화’ 양상은 특정의 ‘적합한’,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33) Short, J. 1996. *The Urban Order*. Melden : Blackwell Publishers Ltd.

34) 상계서

35) Graham, S. and S. Marvin, 2001. *Splintering Urbanism: Networked Infrastructures, Technological Mobilities and the Urban Condition*. N.Y. : Routledge.

36) Logan, J. 1993. "Cycles and Trends in the Globalization of Real Estate". Ed. Knox, P.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Crilley, D. 1993. "Megastructures and Urban Change: Aesthetics, Ideology, and Design". ed. Knox, P. Ibid.

한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개념의 공공공간, 즉 준사유화된 공공공간을 창출하는 또 다른 주요 수단은 경찰과 민간경비를 통한 ‘보안통제(Security Control)’에 의하여 이뤄지며 최근 미국 도심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강화된 보안통제는 다음에서 소개할 ‘질서유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 3. 세계화 시대, 미국 질서유지정책의 특징

새로운 개념의 사적 공공공간을 창출하는 또 다른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미국의 ‘질서유지정책’은 CPTED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1982년 윌슨(J. Q. Wilson)과 켈링(G. L. Kelling)이 쓴 한 잡지의 기사<sup>37)</sup>에서 출발하였다. 1970년대 중반 미국 뉴저지주에서 시행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동네 프로그램(the Safe and Clean Neighborhoods Program)’을 평가하며 두 저자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쓰레기 투기와 같은 비시민적 행동(Incivilities)과 불량한(Impoverished) 생활환경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해칠 뿐 아니라 강도와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인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가 미국 대도시 도심 내의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sup>38)</sup>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강력범죄 혹은 강력범죄 관련 주민들의 공포가 공동체 내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비시민적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적 프로그램을 통해 경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윌슨(J. Q. Wilson)과 켈링(G. L. Kelling)은 짐바르도(P. Zimbardo)의 보고서를 이용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거리에 버려진 차량이 어떻게 인근 주민들의 비시민적 행동을 유발하고 이렇게 유발된 비시민적 행동에 의하여 버려진 차량이 완전히 파괴되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질서유지정책’은 1990년대 미국 뉴욕시(New York City)에 의하여 채택되었는데, 뉴욕시에 의하면 1989년 이후 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집행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6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를 예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급격한 범죄율 감소가 목격되었다.<sup>39)</sup> 이러한 뉴욕시의 ‘질서유지정책’의 성공은 세계 경찰관계 부서의 방문으로 이어졌으며,<sup>40)</sup> 1990년대 후반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질서유지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실제 도시 내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 실천 방안 측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제공하는 등 소개된 직후부터 범죄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sup>41)</sup>. 즉 ‘삼진제도와 최소의무형기제도(the Three-strike and Mandatory Minimum Sentencing Laws)’와 같이 교도소 수감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37) Wilson, J. Q. and G. L. Kelling, 1982. "Broken Window: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The Atlantic Monthly* vol.269, no.3, Washington, D.C. : Atlantic Media Company, pp29-38.

38) Zimring, F. E. and G. Hawkins, 1997. *Crime is Not the Problem: Lethal Violence in America*, New York : Oxford Univ. Press.

39) Kelling, G. L. and W. H. Sousa Jr, 2001. "Do Police Matter?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New York City's Police Reforms". *Civic Report* no.22, New York : Manhattan Institute.

40) Gootman, E, 2000. "A Police Department's Growing Allure: Crime Fighters from Around World Visit for Tips". *The New York Times*, 24, Oct.

41) Matthews, R, 1992. "Replacing 'Broken Windows': Crime, Incivilities and Urban Change". eds, R. Matthews and J. Young. *Issues in Realist Criminology*, Newbury Park : Sage.

미치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격리이론 (Incarceration Theory)’과는 달리 도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반 논리로 환영받았다.<sup>42)</sup> 하지만 도시생활환경 속의 비시민적 행태와 강력범죄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했던 과거의 연구<sup>43)</sup>들이 2000년 이후 다시 부각됨에 따라 ‘질서유지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범죄학계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시민적 행태와 강력범죄 간의 관련성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질서유지정책’은 미국 형사처벌과 관련된 4개의 핵심 가치인 ‘공공의 안전 (Safety)’, ‘처벌(Censure)’, ‘자유(Liberty)’, ‘형평(Equity)’ 모두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처벌의 적절성을 다룬 ‘처벌(Censure)’의 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질서유지정책’은 강력범죄와의 연관성을 근거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항목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형집행과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 바,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정도에 따라 학계는 물론 현장으로부터 심각한 비난의 목소리를 면하기 힘든 것이다. 또한, 제한된 경찰력을 경범죄 단속에 할당하는 ‘질서유지정책’은 강력범죄발생과의 연결고리가 깨어졌을 때, 도시민의 안전유지를 위한 경찰력을 집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도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경범죄에 집중함으로써 경찰력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와 ‘형평’의 측면에서도 빈약한 연결고리하에서의 ‘질서유지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심의 낙후된 지

역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질서유지정책’의 태생적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즉, 도심 낙후지역의 주된 구성원이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임을 고려한다면 ‘질서유지정책’의 주된 타깃은 이들이 되는 바, 이들은 기타 지역의 도시민들보다 보다 엄격한 형집행과 무거운 형량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반면, ‘질서유지정책’이 말 그대로 현재의 ‘우수한’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거나 혹은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격상된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 정책은 ‘부적합한’ 사회 계층을 ‘우수한’ 환경의 질을 지닌 지역으로부터 격리하는 데 주로 쓰여, 앞장에서 언급된 ‘요새건축’, ‘엄폐호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비(非)설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의 퍼싱광장(Pershing Square)의 변천과정 사례는 ‘질서유지정책’에 대한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연방정부의 부지제공으로 로스엔젤레스시의 퍼싱광장은 도심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1870년 조성되었으며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그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미국 도시가 그러하였듯이 고속도로건설과 이에 따른 도시의 외곽확산(Suburbanization), 그리고 도심 외곽지역의 거점도시 성장 등으로 인하여 낙후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도시민들로부터 잊혀진 광장으로 전락, 마약거래상과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었다.<sup>44)</sup> 그 후 1980년대 중반 1984년 제23회 하

42) Harcourt, B. 2002. "Policing Disorder: Can We Reduce Serious Crime by Punishing Petty Offenses", *Boston Review* vol.27, no.2, Somerville : Boston Review, pp16-22.

43) Hope, T. and M. Hough, 1988. "Area Crime and Incivility: a Profile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eds. T. Hope and M. Shaw, *Communities and Crime Reduction*, London : HMSO; Lewis, D. and G. Salem, 1986. *Fear of Crime: Incivility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York : Praeger; Maxfield, M., 1987. "Explaining Fear of crime: Evidence from the 1984 British Crime Survey", *Home Office Research and Planning Unit*, London : HMSO.

44) Loukaitou-Sideris, A. and T. Banerjee, 1998. *Urban Design Downtown: Poetics and Politics of Form*, Los Angeles

계올림픽을 계기로 퍼싱광장은 다시 일반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주요 역사적 건물의 대대적 보수와 오피스·상가건물의 건설, 지하철과 같은 교통인프라의 건설 등이 광장 주변에서 이어졌다. 그 결과, 1986년 시정부 주도로 광장 재생사업이 시작되어 1994년 완공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광장 재생사업의 완공직후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역신문사의 와이트슨(L. Whiteson)이었다. 그는 ‘누구를 위한 공원인가?(Whose park is it?)’라는 기사를<sup>45)</sup> 통하여 퍼싱광장은 주변 골지의 상업건물들에게 종속된 준사유지라며 사업 후 퍼싱광장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비난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골지의 상업세력에 의하여 광장주변이 개발되어 감에 따라, 광장주변에 막대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우범화된 광장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져갔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도심상인협회(the Central City Association)에 의하여 결성된 퍼싱광장관리협회(the Pershing Square Management Association)에 주도적으로 참여, 시정부를 설득하여 1986년 광장재생사업을 이끌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지역 상업세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촉발된 도심공원재생사업의 결과는 하코트(B. Harcourt)의 ‘질서유지정책’에 대한 우려처럼<sup>46)</sup> 공공 혹은 사적 경찰력에 의존한 ‘부적절한’ 이용자들의 공원 진입의 원천봉쇄로 이어졌다.<sup>47)</sup>

앞서 소개된 신 마르크스학자들(Neo-marxists)

의 주장에 따르면, 과감한 수정 없는 미국의 ‘질서유지정책’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 낙후된 미국 도심에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도시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소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최근의 ‘질서유지정책’은 미국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4개의 주요 핵심 가치뿐 아니라 도시 공공장소의 준사유화를 조장함으로써 세계화가 야기할 수 있는 도시민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전반에 걸친 범죄율과 비시민적 행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질서유지정책’의 주요 범죄예방 수단들은 이후 CPTED에 녹아들어가 커다란 비판 없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시주민 혹은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준사유화의 문제점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서유지정책’과 그 목표를 공유하는 CPTED에서도 목격되는 바, 이들의 적극적 개선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선 두 프로그램을 통합,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미국 ‘질서유지정책’과 CPTED의 현 문제점을 고려, 향후 도시설계적 범죄대응 방안(CPTED)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V. 향후 도시설계적 범죄대응 방안을 위한 시사점

경제적 세계화시대 속의 미국의 ‘질서유지정책’과

: Univ. of California Press.

45) Whiteson, L. 1994. "Bold New Look, Same Old Hope: New Pershing Square Declares Confidence, but Can Design Change L.A.'s Social Habits?". *Los Angeles Times*, 13, Feb.

46) 하코트(B. Harcourt)는 지금의 ‘질서유지정책’은 세계화시대 속의 상업세력(자본가)이 선호하는 도시경관을 강제 혹은 조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Harcourt, B. 2002. Idem.).

47) Loukaitou-Sideris, A. and T. Banerjee, 1998. *Urban Design Downtown: Poetics and Politics of Form*,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도시설계의 특징은 각각 출발은 달리 하였으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그 바탕이 되는 이론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그 예로 '질서유지정책'의 토대가 된 '깨진 유리창 이론(the Broken Window Theory)'은 환경설계적 범죄대응 방안인 CPTED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지역 이미지 개선 차원의 환경설계적 접근을 CPTED의 주류로 편입시킨 바 있다.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 모두 공통된 문제점을 지적 받는 바, 그것은 바로 공공공간의 준수유화라는 문제점과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비록 초기의 CPTED의 비난에 대한 자구적 혁신을 통해 현재의 CPTED는 그 환경의 의미를 물리적 공간의 환경을 넘어 처벌의 강도와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 더 나아가서는 빈곤과 실직과 같이 범죄자를 둘러싼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시키며 실질적 범죄예방책으로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CPTED 대표화자인 제프리(R. Jeffery)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CPTED는 여전히 범죄자의 개인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들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개개인의 심리적 또는 '심리생리학(Psychobiology)'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실질적 범죄 예방효과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up>48)</sup> 가령 최첨단의 현대적 보안장비의 설치를 통하여 일정지역을 범죄예방 차원에서 완벽하게 보완하였다하더라도 범죄자의 내재적 요인<sup>49)</sup>을 개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이상, 미래의 범죄자는 새로운 보완시설에

대응하는 최첨단 범죄장비를 이용,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심지어는 현재 CPTED의 주요 설계원칙을 역이용하는 형태를 통해서도 범죄행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sup>50)</sup> 이러한 현대 CPTED의 내재적 문제점은 '질서유지정책'에도 존재하여, 사회적 범죄 유발 원인과 개인 성향에 대한 미약한 고려는 '질서유지정책'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서유지정책'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CPTED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는 바, 그 핵심은 도심 내에서의 '범죄관련 우려(Fear of Crime)' 해소를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제고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 의하여 범죄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간과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시민적 행태와 불량한 물리적 생활환경이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는 측면이다. 실제 범죄의 발생과 범죄에 대한 우려를 동일시하면서 범해진 이 오류는 강력범죄 발생과 비시민적 행태는 불확실한 연관성을 가지는 반면, 비시민적 행태가 범죄에 대한 우려,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 삶의 만족도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짐<sup>51)</sup>으로써 증명되었다. 많은 CPTED 관련 연구 또한 물리적 환경 설계 혹은 개선이 범죄발생 억제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분명한 대답을 못하는 반면 범죄 관련 우려의 해소 측면에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

48) Jeffery, R. 1977. Idem; Jeffery, R. 1990. *Criminolog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49) 제프리는 범죄자의 내재적 요인을 '내부환경(internal environment)'로 정의, CPTED가 다뤄야할 '환경(environment)'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Jeffery, R. 1977; 1990. Ibid.

50) 아틀라스(R. Atlas)는 CPTED의 방어공간개념을 이용하여 마약거래상들이 그들만의 범법공간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Atlas, R. 1991. "The Other Side of Defensible Space". *Security Management*, no. March, Alexandria : ASIS International, pp63-66.

51) Hope, T. and M. Hough, 1988; Maxfield, M. 1987.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강력범죄에 노출될 기회보다는 비시민적행태나 이로 인한 불량 도시경관 혹은 범죄관련 공포를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존 ‘질서유지정책’이나 CPTED의 범죄억제력 부재의 문제점으로 인한 프로그램 자체의 폐기가 아닌 ‘범죄관련 우려 해소’와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의 방향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그 기본 목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었을 때, ‘질서유지정책’과 CPTED는 별개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지역개발 혹은 지역개선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성격 자체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조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새로운 범죄관련 지역개선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된다.

물론 새로운 지역개선프로그램하에서도 환경설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오히려 범죄의 예방이 아닌 ‘범죄관련 우려의 해소’를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로의 목표 전환은 지금까지의 도시설계적 CPTED 접근방식에 내재해오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 활용의 폭을 넓혀주는 데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범죄의 예방에서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경감으로 그 주된 목표가 전환됨으로써 범죄자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공포유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공통된 반응이 주된 고려대상으로 전환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주민들로부터의 적극적 의견수렴이 도시설계의 필수요소로 대두된다. 즉, 계속된 자기진화를 통해서도 극복하지 못했던 CPTED의 내재적 문제점인 범죄자 개별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로서 향후 적극적인 논

리 전개 및 현장 적용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범죄관련 도시설계의 주요 기본원칙과 다른 목적의 도시설계 원칙 간의 마찰 또한 범죄의 예방이라는 하위의 개념이 아닌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상위가치하에서 다뤄짐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재 CPTED의 문제점 중 하나는 주요 범죄예방 차원의 도시설계 기본원칙들이 다른 목적의 도시설계 기본가치들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CPTED의 접근성 통제원칙이 때로는 일반적 도시설계의 주요 원칙인 접근성 강화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접근성 강화를 통해 성취 가능한 ‘편이성(Convenience)’은 물론 현대 도시설계에서 주요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이용자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라는 가치들이 범죄예방만 강조되는 CPTED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상위 가치가 생긴다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삶의 질’ 제고라는 상위 가치의 존재는 현재 CPTED 도시설계 기본원칙들 간의 조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담장의 설치가 CPTED의 두 가지 주요 두 원칙인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와 ‘보안성 강화(Target Hardening)’에 미치는 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예방에 환경설계의 초점을 맞춘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범죄에 대한 우려 경감과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로서, 국내 담장허물기 사업과 관련된 거주민의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에<sup>52)</sup> 의하면 담장허물기는 범죄관련 우려의 경감(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주민들 사이의 친밀도 및 소속감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경우에서 담장 허물기가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970년대 뉴만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개념을 기반으로 한 초기 CPTED의 주요 원칙이 저소득층 공공주거단지를 제외한 주거단지 및 학교, 상업지역 등 다른 용도의 지역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주요 개념의 적용조차도 문제가 많았음에서<sup>53)</sup> 보여주듯이 ‘삶의 질’ 제고라는 상위의 가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범죄관련 도시설계적 대응방안의 주요 원칙의 적용은 물론 각 원칙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은 적용지역 여건의 충분한 고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예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CPTED는 지역여건의 충분한 고려를 위한 여지를 줄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고려와 참여 없이 경비원의 고용 및 폐쇄회로텔레비(CCTV)의 설치, 단지 입구의 자동화된 출입통제시설 설치 등 현대화된 보안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편이성 위주로만 적용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편의성위주의 무분별한 CPTED의 적용은 결국 공동체 구성원을 각종 보안장치 뒤편으로 격리시켜왔다. 이로 인하여 CPTED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요시해왔던 지역주민 간의 유대관계강화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을 통한 공공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 외부인에 대한 자연적 감시와 같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는 범죄예방기능(또는 공포심리 경감기능)을 잃게 된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할 때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선프로그램의 도입은 보다 활성화된 민·관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설계적 대응방안의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 자체도 ‘범죄예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비시민적 행태가 팽배한 기존의 문제지역을 개선하는 경우 ‘범죄예방’을 강조할 때 범법행위의 경중을 떠나 지역주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개선사업 혹은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미국의 연구와 사례는 기존 도시주민 대한 경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범죄관련 공포 경감’으로의 기본 목표 전환은 기존 주민을 범죄자가 아닌 그동안의 범죄관련 도시문제의 피해자로 대하게 되므로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개선책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역개선프로그램의 수립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은 경제적 세계화가 도심범죄관련 미국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도시지역 도심의 중요성은 오히려 강조되었으며, 세계화된 기업과 관련 종사자의 도심으로의 회귀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및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범죄관련 도심문제

52) 김유리, 2008. “담장허물기 사업이 거주민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단독주택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3) Clarke, R. V. 1995.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eds. M. Tonry and D. Farrington,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Crime and Justice* vol.19,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pp91-150.

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국의 도시설계와 미국 지방정부의 '질서유지정책'은 특정 계층만의 도시공간, 즉 준사유화된 도시 공공공간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예방수단 대부분이 큰 여과 없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도입됨으로써 공공공간의 준사유화와의 인연으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위화감 등 또 다른 도시사회문제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및 현재 미국의 범죄관련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 도시설계적 범죄대응 방안은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범죄관련 지역개선프로그램으로의 전환될 것과 새로이 전환된 프로그램은 '범죄에 대한 우려' 경감과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새로운 접근방식은 향후 국내 도시설계적 범죄대응 방안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기존 주민을 범법자가 아닌 도시범죄의 피해자로서 인식,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설계적 범죄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삶의 질' 제고 측면의 범죄대응 접근방식은 기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내재적 오류에서 기인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국내 후속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범죄관련 도시설계 대응방안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언적 제시가 그 기반을 잡아가기 위해선 현장사례 중심의 많은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먼저, 후속연구를 통하여 실제 범죄의 발생과 범죄에 대한 우려 혹은 공포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지를 보다 실증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CPTED가 범죄예방에 치중하면서 제시했던 주요 원칙들이 과연 범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도시민의 범죄관련 우려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거리의 보행량 및 주민 간의 교류와 같이, 그동안 범죄예방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인자들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요구된다. 즉, 전체 도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을 다루는 도시설계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범죄관련 대응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범죄예방차원에서 잠재적 범죄자의 행태를 연구한 노력 이상으로 범죄와 관련된 우리 이웃의 그동안 어려움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식을 쌓아가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참고문헌**

각 연도 경찰백서. 경찰청(<http://www.police.go.kr>). [2008.11.13]  
 강석진·안은희·이경훈. 2005.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2호. 서울 : 대한건축학회. pp19-28.  
 김길섭. 2008. "안전한 도시를 위한 CPTED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유리. 2008. "담장허물기사업이 거주민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단독주택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태경·이승일. 2007. "공간특성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국토연구 제53권. 경기 : 국토연구원. p143.  
 Angel, S. 1968. "Discouraging Crime Through City Planning".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1, "The Other Side of Defensible Space". *Security Management* no. March, Alexandria : ASIS International, pp63-66.
- Bram J. and A. McKay. 2005. "The Evolution of Commuting patterns in the New York City metro area".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vol.11, no.10, New York City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pp1-7.
-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Inc.
- \_\_\_\_\_. 2002. *The Castells Reader on Cities and Social Theory*.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Inc.
- Clarke, R.V. 1995.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eds, M. Tonry and D. Farrington.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Crime and Justice* vol.1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91-150.
- Crilley, D. 1993. "Megastructures and Urban Change: Aesthetics, Ideology, and Design". ed, Knox, P.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pp127-164.
- Fishman, R. 1987. *Bourgeois Utopia: The Rise and Fall of Suburbia*. New York : Basic Books.
- Gootman, E. 2000. "A Police Department's Growing Allure: Crime Fighters from Around World Visit for Tips". *The New York Times*. 24, Oct.
- Goss, J. 1933. "The Magic of the Mall: an Analysis of Form, Function, and Meaning in Contemporary Retail Environ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83, Washington, D.C. :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pp18-47.
- Gottdiner, M. 1997. *The Theming of America: Dreams, Visions and Commercial Spaces*. Boulder : Westview.
- Graham, S. and S. Marvin. 2001. *Splintering Urbanism: Networked Infrastructures, Technological Mobilities and the Urban Condition*. New York : Routledge.
- Greenberg, S. and M. W. Rohe. 1984. "Neighborhood Design and Cri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50, pp48-61.
- Hall, P. 1966. *The World Cities*. London : Weidenfeld and Nicolson.
- Harcourt, B. 2002. "Policing Disorder: Can We Reduce Serious Crime by Punishing Petty Offenses". *Boston Review* vol.27, no.2, Somerville : Boston Review, pp16-22.
-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Los Angeles : Univ.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1. *Spaces of Capital: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New York : Routledge.
- Hope, T. and M. Hough. 1988. "Area Crime and Incivility: a Profile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eds, T. Hope and M. Shaw. *Communities and Crime Reduction*. London : HMSO.
- Hough, J. M, R. V. G. Clarke and P. Mayhew. 1980. *Designing Out Crime*. London : HMSO.
- Jacobs, J. 1961. *The Life and Death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 Random House.
- Jeffery, C. R.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y Hills : Sage.
- \_\_\_\_\_. 1977.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2nd, Beverly Hills : Sage.
- \_\_\_\_\_. 1990. *Criminolog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Kelling, G. L. and W. H. Sousa Jr. 2001. "Do Police Matter?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New York City's Police Reforms". *Civic Report* no.22, New York : Manhattan Institute.
- Lewis, D. and G. Salem. 1986. *Fear of Crime: Incivility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York : Praeger.
- Logan, J. 1993. "Cycles and Trends in the Globalization of Real Estate". ed, Knox, P.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 Loukaitou-Sideris, A. and T. Banerjee. 1998. *Urban Design Downtown: Poetics and Politics of Form*. Los Angeles : Univ. of California Press.
- Massey, D. 1996. "The Age of Extreme: Concentrated Affluence and Pover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ography* vol.33, no.4, Baltimore : Project MUSE, pp395-412.
- Matthews, R. 1992. "Replacing 'Broken Windows': crime, incivilities and urban change". eds, R. Matthews and J. Young. *Issues in Realist Criminology*. Newbury Park : Sage.
- Maxfield, M. 1987. "Explaining fear of crime: evidence from the 1984 British Crime Survey". *Home Office Research Paper* 43, London : HMSO.
- Murray, C. 1994. "The physical environment". eds, J. Q. Wilson and J. Petersilia. *Crime*. San Francisco :

-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 Mitchell, W. 1995. *City of Bits: Space, Place, and the Infobahn*. Cambridge : The MIT Press.
-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People and Design in the Violent City*. New York : McMillan.
-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ort, J. 1996. *The Urban Order*. Melden : Blackwell Publishers Ltd.
- Taylor, R. B. and A. V. Harrell. 1996. "Physical Environment and Crim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Weiss, R. 2000.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and Globalization at the New Millennium". *Social Justice* vol.27, no.2, San Francisco : Social Justice, pp1-17.
- Whiteson, L. 1994. "Bold New Look, Same Old Hope: New Pershing Square Declares Confidence, but Can Design Change L.A.'s Social Habits?". *Los Angeles Times*. 13. Feb.
- Wilson, J. Q. and G. L. Kelling. 1982. "Broken Window: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The Atlantic Monthly* vol.269, no.3, Washington, D.C. : Atlantic Media Company. pp29-38.
- Wood, E. 1961. *Housing Design, a Social Theory*. New York : Citizen's Housing and Planning Counsel of New York.
- Zimring, F. E. and G. Hawkins. 1997. *Crime is Not the Problem: Lethal Violenc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 Press.

- 
- 논문 접수일: 2009. 1.20
  - 심사 시작일: 2009. 1.23
  - 심사 완료일: 2009. 2.16

ABSTRACT

**Crime-related U.S. Urban Design and Order Maintenance Poli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Urban Design Practices**

Keywords: Globalization, Urban Crime, Urban Design, Order Maintenance Policy, Semi-privatiza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Recent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did not reduce the necessity of centrality bu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flexibility of production resources such as capita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is phenomenon then leads to competition between local to international geographical region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making cities and regions vulnerable to the needs and interests of globalized industry. Under such circumstances, crime-related U.S. urban design and order maintenance policy are blamed to be a tool for urban spatial segregation. This paper therefore argues that current crime-related urban design practices 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should be revised and that the change may be facilitated by first shifting its major goal from crime prevention to fear-of-crime reduction in ways that can enhance the quality of urban life. This more comprehensive approach will ensure increased participation of local urban residents and will help come up with context-based, more successful outcomes. This paper, however, calls for follow-up empirical studies revisiting current major design principles of CPTED in association with fear-of-crime reduction and the quality of urban life.

**세계화시대의 도시범죄관련 미국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

주제어: 세계화, 도시범죄, 도시설계, 질서유지정책, 준사유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본 연구는 경제적 세계화가 미국 내 도시범죄관련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the order maintenance policy)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보관련 기술의 발전을 수반한 경제적 세계화는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극도로 유동화된 자본과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및 도시 간의 경쟁체제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도시설계와 지방정부의 질서유지정책은 세계화된 자본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준사유화된 공공공간을 창출, 범죄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되기보단 도시구성계층 간의 공간적 격리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에서 야기된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거울삼아, 향후 도시설계적 접근방식은 범죄예방보단 '범죄관련 우려' 경감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선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지역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선언적 제시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존 CPTED의 주요 원칙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재조명 하는 국내 현장중심의 실증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